무로마치 시대의 간화선
: 체계화의 시작?

디디에 다방*

Ⅰ. 머리말
Ⅱ. 간화선의 관점에서 본 가마쿠라선의 특징
Ⅲ. 다이토(大燈)와 무로마치선
Ⅳ. 타이토선의 탄생과 발전
Ⅴ. 무로마치선이란
Ⅵ. 결론에 대신하여, 공안관의 근본적 차이

▌한글요약

현대 일본 임제종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수행자가 하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안을 통과함으로써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오늘날 일본 임제종에서는 소위 "하쿠인(白隱) 선"으로 유일하게 전하는 특징이다. 이 글은 이 현상의 가능한 기원에 대한 반조며, 특히 중세의 말기에 등장한 다이토(大燈) 파의 교리적 배경으로 소급하는 가설을 고찰한다.

신푸쿠지(眞福寺)에서 최근 발견된 문헌에 의한 많은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에 일본에서 발전된 다양한 선문(禪門)들은 이른바 경전적 통합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재확인 할 수

* Didier Davin,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

있다. 그러나 다이토 국사와 그 뒤를 잇는 지파들은 이러한 태도를 격파하고 선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법을 옹호했다.

결과적으로, 공안에만 초점을 맞춘 관행이 생겨났고, 그들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났다. 다른 많은 특징들에 대해서는, 몇몇 특정 공안을 통과해야 할 필요성과 일종의 체계화가 눈에 띈다. 이러한 많은 요인이 하쿠인선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르는 운동의 시작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임제종, 간화선, 무로마치 선, 다이토 국사, 공안

Ⅰ. 머리말

현대 일본 간화선의 최대의 특징은 아마도 복수의 공안을 통하여 대오(大悟)에 이르려고 하는 일종의 커리큘럼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임제선은 보통 '하쿠인선(白隱禪)'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쿠인 본인보다 그 후의 세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쿠인 이전의 간화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단히 거칠지만, 하쿠인까지의 일본의 선을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마쿠라선(鎌倉禪)'과 '무로마치선(室町禪)'이라고 부르겠지만, 역사학에서의 시대구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그중 후자에 대하여 이야기겠지만,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마쿠라시대의 임제선의 주요한 흐름을 간략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Ⅱ. 간화선의 관점에서 본 가마쿠라선의 특징

일본에 선이 전래된 과정은 약간 복잡한데, 단순히 '(선이) 수입되었다'는 표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텍스트의 전파와 사람의 교류, 교단의 설립이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였고, 또한 사상사적으로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선」이 생겨난 것은 물론 아니다. 그 전파과정이나 초기의 선사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활발하였는데, 특히 나고야 신푸쿠지(眞福寺)에서 발굴된 신자료를 중심으로 가마쿠라시대의 선이 화제가 되고 있다. 몇 가지 사실들이 새로 발견되거나 재확인되면서 임제종의 이미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조동종을 제외하면 가마쿠라선에 두 가지 커다란 방향이 보인다. 하나는 엔니벤엔(円爾弁円, 1202-1280)을 개조로 하는 쇼이치하(聖一派)로 밀교와 선을 융합한 가르침을 주창하였다. 오랜 기간 경멸적 뉘앙스를 담아 '겸수선(兼修禪)'으로 불렸는데, 근년 그 역사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선은 도래승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며, 후에 5산(五山) 제도로 정리되는 것이다. 이 선의 흐름은 5산제도의 설립 이전에 시작되었으므로 표현 방식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5산선으로 부르기로 한다.

5산선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주지하는 바이지만 중국 임제종의 영향을 받아 문학을 대단히 중시한 점이다. 나중에 '5산문학'으로 일컬어지는 장르가 탄생할 정도로 한시를 중심으로 승려들이 문장과 시를 짓는데 탐닉하였다. 5산의 선승들이 문인이 된 결과 선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 비판적 견해도 있지만,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들에게 영명연수(永明延壽)의 『종경록(宗鏡錄)』의 영향이 컸음은 야나기 미키야스(柳幹康)의 연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로이다.[1] 5산 선승이 모두 같은 사

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점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기본적 전제는 공통적이었다. 그러한 사상적 경향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이다. 그의 저작 중에는 공안과 간화선에 대한 견해들이 보이고 있다. 야나기 미키야스가 지적한 것이지만, 무소의 공안관은 그의 불교관 전체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깨달음을 향한 서로 다른 길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교문(敎門)과 선문(禪門) 양쪽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다. 무소에 의하면 석존의 가르침은 교도 선도 아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선과 교, 두 문으로 나뉘었다. 교에는 현밀의 여러 종宗이 있고, 선에는 5가의 차별이 있다." (『몽중문답집(夢中問答集)』 제80문답). 그리고 그 속에서 공안은 무엇인가 하면 방편의 하나라고 한다. 『몽중문답집』 제32문답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

> 문 : 복지福智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이를 싫어하는데, 선가의 학자가 1칙의 공안을 제시提撕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괴롭지 않은가?
>
> 답 : 고인이 말하기를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
> 학자가 만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원오선사가 말하기를 "만일 이근종성利根種姓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인의 언구, 고안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공안을 주는 것이 종사의 본의가 아님을. 설혹 자비를 베풀어 1칙의 공안을 주었다고 하여도 부처의 명호를 불러 왕생을 구하고, 주문을 암송하고 경전을 읽어 공덕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 까닭은 종사가 사람들에게 이 공안을 준 것은 정토왕생을 위

1) 대표적으로 柳幹康(2018), 「夢窓疎石『宗鏡錄』」, 『東アジア仏教学術論集』6, 271 -302 참조.

> 한 것이 아니고, 성불득도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세간의 기특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법문의 의리를 위해서도 아니다. 모든 정식情識들의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 그러므로 공안이라고 이름 한다. *이것을 철만두에 비유하는데, 다만 정식情識들이 혀를 움직일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깨물고 씹다보면 반드시 씹어 깨뜨릴 때가 있게 된다. 그때에 비로소 이 철만두는 세간의 5미와 6미가 아니고, 출세간의 법미法味와 의미義味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공안은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만 방편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근종성利根種姓)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근기의 우열에 따라 구제의 방법이 다른 가운데에 교문과 선문이 제공하는 많은 선택지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 공안 수행의 구체적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논자가 파악하는 한에서는 현재와 같이 복수의 공안을 통과하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 인용문의 마지막에 공안을 참구하는 것이 무미무취한 철로 된 만두를 씹는 것에 비유되고 있는데, 그것을 씹어 깨뜨릴 때에 '세간의 5미와 6미가 아니고, 출세간의 법미와 의미도 아님'을 알게 된다. 여기에는 공안을 돌파하면 대오(大悟)를 성취한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씹어 깨뜨린 후에 다시 새로운 공안을 참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같은 『몽중문답집』 제37문답에 또 다른 힌트가 보인다.

> 문 : 초심의 학자는 먼저 참의參意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안을 주고서 제시提撕하게 하는 것은 참구參句하는 것이 아닌가?
> 답 : 반드시 고인의 언구를 본다고 하여서 참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언구의 위에서 파주把住·방행放行을 이론理論하고,

> 나변那邊·저변這邊을 상량商量하는 것을 참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비록 말없이 벽을 향하여 앉아 있어도 가슴 속에 온갖 지식과 이해를 품고서 안배계교安排計較하는 것도 또한 참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지해知解와 정량情量을 내려놓고서 곧바로 1칙의 공안을 보는 것은 곧 참의參意하는 수단이다. 설혹 고인의 어록을 보고, 지식의 법문을 들어도 곧바로 이를 마음에 품고서 의로義路·이로理路 위에서 이해를 내지 않으면 이것이 곧 참의하는 사람이다. (후략)

여기에서도 밑줄 그은 문장에서 '1칙의 공안'이란 말이 '하나의 공안만'을 의미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시 복수의 공안을 돌파하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소는 공안을 하나만 가지고 했다고 하는 해석이 현 단계의 논자의 이해로서는 가장 자연스럽다.

무소는 5산선의 최고 대표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5산의 선승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상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무소 – 그리고 5산선 – 에 대해 사상적 이의를 처음으로 주장하였던 것은 슈호 묘쵸(宗峰妙超), (다이토 국사大燈國師, 1282-1337)였다고 생각된다.

Ⅲ. 다이토(大燈)와 무로마치선

논자의 견해로는 가마쿠라선에서 무로마치선으로의 전환점은 다름 아닌 다이토가 제시한 새로운 방향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선'에 들어 있던 '교'의 부분이 거절되었다. 교문에 대한 다이토의 입장은 『상운야화(祥雲夜話)』와 같은 책에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문

장들이 적혀 있다.

> 且世尊方便門中, 不道無如此事, 只是止啼說耳
>
> 또한 세존의 방편문 중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지제止啼[2]를 위한 이야기일 뿐이다.[3]
>
> 我亦不道諸教不說心說性, 說則說, 只是迂曲方便, 而非吾宗直指也.
>
> 나도 또한 제교諸教에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다만 이것은 우활한 방편일 뿐이고 우리 종의 직지直指는 아니다.[4]

교문과의 관련은 가마쿠라선의 중요한 과제였는데, 다이토는 단호하게 단절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상적인 주장으로, 사원의 일상생활에서 다이토파가 교문과 직접 관련되는 경전이나 불상 등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사상에서 만이라도 '선문'을 절대시하는 자세는 거의 필연적으로 임제종의 실천기반인 간화선에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왔다고 논자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임제종 전체의 역사를 볼 때에 다이토의 시대부터 그 사상과 실천이 급격히 바뀌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무소오파를 중심으로 하는 5산선이 강력한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무로마치시대 말기까지 계속되었지만, 그 후 역사적 동란에 의해 서서히 다이토파가 임제종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의 주요한 분기점은 '오닌(応仁)의 난(亂)'일 것이다. 그때까지 5산제도를 떠받치고 있던 막부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다이토

2) 止啼는 울음 소리를 그치게 하는 것이다.
3) 平野宗浄 編(1978), 참조.
4) 위와 같음.

파가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 때문에 경제 기반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다이토파의 중심이 다이토쿠지(大德寺)에서 묘신지(妙心寺)로 바뀌고, 묘신지파에서 하쿠인이 나와 그 흐름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크게 구분하여서, 다이토파의 역사는 다이토의 시대에서 오닌의 난 무렵까지의 비교적 작은 세력이었던 시기, 그 이후 하쿠인까지의 성장기, 그리고 하쿠인에서 현대까지의 (거의) 독점기 등의 3시기로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제1기의 간화선의 구체적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대단히 적어서 당시의 상황을 알기 어렵다. 제3기는 하쿠인 이후로서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남는 것은 오닌의 난 무렵부터 시작된 간화선으로, 곧 여기에서 말하는 무로마치선이다.

Ⅳ. 다이토선의 탄생과 발전

다이토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견해에 의해 선종의 수행은 선문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당연히 간화선이 중심적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논자의 추측이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이토 자신의 간화선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5] 그의 어록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후대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이고 있다. 무로마치 후기의 코가쿠 소코(古岳宗亘, 1465-1548)가 작성한 『다이토쿠지야화(大德寺夜話)』의 내용이다.

5) 公案과 직접 관계되는 다이토의 「下語」가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다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 平野宗浄(1971), 43-74; 平野宗浄(1972), 141-180.

> 일. 개산開山께서 말하였다. 학자가 먼저 만법萬法의 화두를 참구해야 하느냐, 백수자栢樹子 화두를 참구해야 하느냐 하고 묻자, 벤엔弁円께서는 먼저 백수자 화두를 참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까닭은 만법을 참구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도 만법이 남기 때문이다. 백수자는 탈체현성脫體現成 하여서 남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먼저 백수자 화두를 참구해야 한다. 개산은 이것을 비결로 하였다.

학인이 먼저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화두를 참구해야 한다고 다이토(開山)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비결의 구전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참구하는 공안이 있다면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공안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로 다이토의 말이라면 그의 시대에 복수의 공안을 차례로 참구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다이토에게 그러한 생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필자가 아는 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이토 자신의 간화선관이라기보다 다이토파의 간화선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서 『벽암집고초(碧巖集古鈔)』 라는 텍스트가 있다.[6] 여기에 다이토와 다이토파로 생각되는 선승('선사先師'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음)과의 구체적인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만, 다이토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은 대단히 낮다.

다이토파의 법계도를 간략히 제시한 것이 뒤에 첨부한 <법계약도>인데, 간화선 측면에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요소(養叟)의 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그때까지의 수행방법과 사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이토에게는 텟토(徹翁)와 칸잔(関山)이라는 두 명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전자로부터 이른바 다이토쿠지파(大徳寺派)가 생겼고, 후자로부터는 묘신지파(妙心寺派)가 생겼다. 텟토의 시대부터 다이토쿠지파가 강한 자기의식을

6) 安藤嘉則(2011), 321-322.

가지고 있었음은 타마무라 타케지(玉村竹二)가 지적한 대로이다.[7] 그 배경에 5산파에 대한 유파의 세력 경쟁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이토의 무소 비판이라는 사상적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눈에 띄는 움직임은 요소(養叟)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얄궂게도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그에 대해 맹렬하게 반대하였던 동문후배 잇큐 소쥰(一休宗純)이다. 그는 사형을 매도하는 시집인 『자계집(自戒集)』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기고 있다.

> 코쇼康正 원년의 가을 끝자락에 요소가 이즈미泉의 사카이堺 지역에 새 암자를 건립하였다. 암호를 양춘암陽春菴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요소의 입실옥入室屋이라고도 하였다. 그해 12월에 사카이에 내려가 안좌安座·점안點眼하고 암자를 열어 다섯 가지의 수행을 행하였다. 하나는 입실入室, 하나는 수시垂示·착어著語, 하나는 『임제록』 강의, 하나는 참선, 하나는 사람을 득법得法함이다.[8]

이 자료에 의하면 요소가 암자를 건립하고 새로운 형태의 선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행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자계집』의 다른 부분과 함께 읽어보면 다음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재가신자들에게 그 때까지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임제록』 강의'는 그 중의 하나이다. 또한 공안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다. '수시(垂示)·착어(著語)'는 공안에 대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당시의 '입실(入室)'은 현대와 같이 스승이 학인의 공안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는 장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행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안도 요시노리(安藤嘉則)는 지적

7) 玉村竹二(1981), 311-356.
8) 平野宗浄 編(2003), 127.

하고 있다.[9] 당시에 일대 일로 행해졌는지, 집단으로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역시 공안과 깊이 관계되는 수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참선'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고, '득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들 다섯 가지 수행을 비판하기 위하여 잇큐가 일부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자료에 이들 다섯 가지 수행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결국 다이토가 새로운 입장을 주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다이토파가 공안을 중심으로 한 실천을 전개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논자의 견해이다. 또한 일본 간화선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요소가 중요한 인물이었음은 황벽종(黃檗宗)의 쵸온 도카이(潮音道海, 1628-1695)가 지은 『무해남침(霧海南針)』에서도 확인된다. 이 책에 다음의 문장이 보이고 있다.

> 최근 백년 사이에 선가의 임제·조동 두 종과 일본의 고덕·조사의 공안에 하어下語와 착어著語 등을 붙인 것을 모아서, 이것을 참칙參則이라고 정하여, 벽암 이전의 1백칙, 벽암의 1백칙, 벽암 이후의 1백칙 등 3백칙을 헤아리면서 파참대오破參大悟라 일컫고, 행권대行卷袋[10]나 밀참상密參箱에 넣어두고서 이것을 일대사인연 모두 일시에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헤아려 참구하도록 가르치는 장로 중에도 다문박학의 사람이 있지만 명리고만名利高慢의 마음에 장애되어,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으니, 단지 매가 죽은 쥐를 가져도 숨겨두는 것과 같다. 이것은 내가 일부러 비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불경과 조사의 어록 중에서 선덕들이 경계한 것이다.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착어와 하

9) 安藤嘉則(2001), 참조.
10) 行卷袋 : 에도시대에 선승이 머리에 쓰거나 가지고 돌아다니던 주머니 (中村仏教辞典).

> 어의 뜻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서 단지 고덕이 붙인 것을 점점 스승으로부터 본분本分의 구절, 또는 현성現成의 구절이라고 배웠다고 말할 뿐이다. 어린아이가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어둡게 하고, 파참破參 하였다는 지식과 장로의 행위도 어리석은 속인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법만法慢하여서 제종諸宗을 모욕하고, 정법正法을 비방한다. 이 때문에 2백년 이래에 선의 등불이 꺼지고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한 개, 반 개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헤아려 참구하는 것은 다이토쿠지의 요소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잇큐의 『자계집』에서도 이렇게 참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11]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지만, 이 글에서 다양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쇼온 도카이는 당시의 선의 연원이 요소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가 1695년에 입적하였으므로, 하쿠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 시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세 시기 중 두 번째 시기(무로마치선)의 모두가 요오소오에게서 비롯된 선풍을 주류로 하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물론 황벽종의 승려로서 중립적 입장은 아니었고, 기존의 선종을 비판적 눈으로 보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사상적 입장과는 별개로 여기에 드러난 정보의 중요성에는 차이가 없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정해진 공안의 리스트가 있어서, 하나하나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스승과 학인이 '하어·착어'를 붙였다.
② 모든 공안을 돌파하면 대오(大悟)하게 된다.
③ 그 '하어·착어'를 붙인 책을 극비의 가보와 같이 다루었다.
④ 이와 같은 모습은 요오소오의 '헤아리는 참구'에서 시작되었다.

11) 森大狂 . 山田孝道 校注(1921), 163-164.

요소의 '헤아리는 참구'에 대해서는 이것 이상의 자료는 없다. 또한 그것이 정말로 후대 선풍의 유일한 유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특징은 다름 아닌 「무로마치선」의 특징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Ⅴ. 무로마치선이란

간화선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군은 「밀참록(密參錄)」이다. 거기에는 몇 가지 참선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 대한 평판은 대단히 좋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쵸온 도카이의 글에는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있고, 20세기에는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가 '변태선(變態禪)'이라고 비판하였다.[12] 여기에서는 물론 그 좋고 나쁨에 대해 검토할 생각은 없으며, 그 시기의 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밀참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논자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밀참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즈카 히로노부(飯塚大展)와 안도 요시노리 두 선생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 성과에 기초하여 「밀참록」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텍스트의 특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임제종과 조동종 모두에 보이는 문헌 타입이다(조동종에서는 문참門參이라고 부름)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5산파에 속하지 않는 「임하(林下)」, 즉 조동종·다이토쿠지파·묘신지파·겐쥬

12) 鈴木大拙(1999), 284.

파(幻住派) 등에 많이 보인다.

- 공안 리스트에 몇 가지 계통이 있으며, 유파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안도씨에 의하면 다이토쿠지에서는 「백오십칙」 「벽암류칙(碧巖類則)」 「운문백칙(雲門百則)」 「다이토백이십칙」이 있으며, 묘신지에는 「벽전벽후(碧前碧後)」가 있었다고 한다.
- 모든 「밀참록」이 같은 패턴이었던 것은 아니고, 일정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잡칙(雜則)」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계통의 존재 자체는 일종의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었음을 강하게 보여준다.
- 「밀참록」으로 볼 때 무로마치선의 커다란 특징은 복수의 공안을 통과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과정이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 특징은 예를 들면 이이즈카 히로노부가 지적한 것처럼 「벽암류칙밀참록」에 보인다.

- 건장建長 다이오 국사(大應國師)는 25세에 입당(入唐)하여 허당(虛堂)을 7년 동안 모시고 법을 이었다. 이해에 국사는 21세였다.
- 개산(開山)인 다이토 국사(大燈國師)는 다이오 국사를 5년 동안 모시고 1백 80칙을 참학(參學)하여 파참(罷參)하고 56세에 입적하였다.
- 요소(養叟)화상은 카소(華叟)에게 80칙을 참학하여 파참하였다.
- 다이모(大摸)는 별전(別傳)을 참학하여 곤가이(言外)의 법을 이었다고 하지만 곤가이에게는 반구(半句)도 묻지 못하였다. (후략)[13]

13) 飯塚大展(2001), 139.

이에 따르면 다이토는 180칙의 공안을 돌파하여 깨달았다. 텟토(레이잔靈山)은 80칙, 요소도 80칙에 깨달았다. 또한 곤가이 소츄(言外宗忠)의 법을 이은 다이모 슈쥬(大摸宗授)가 한 구절도 참학하지 않았던 것은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밀참록」의 필자는 계도상 대모종수를 방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무로마치선에서 복수의 공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밀참록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이즈카 히로노부가 소개한 『백칙(百則)』[14] 밀참록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승려가 월주越州에게 무엇이 조사가 서래西來한 뜻[意]인지 물었다.

스승이 다그쳐[拶] 물었다. 의意의 근원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설명하였다[弁]. 의意의 근원은 없는 것입니다.

다그쳤다[拶]. 눈으로 색을 보니 꽃, 버드나무, 눈, 달 등을 안다. 귀로 들으니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 나팔 소리 등을 안다. 코로 냄새를 맡으니 좋은 향기, 나쁜 냄새 등을 안다. 혀로 맛을 보니 5미를 안다. 몸으로 느껴서 아픔, 가려움, 뜨거움, 차가움 등을 안다. 모두 이와 같이 의로 분별한다. 그 밖의 희노애락의 일이 생기면 희노애락하는 것도 모두 의意인데, 왜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답하라.

설명하였다[弁]. 의는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으로 색을 보기 이전에 의가 없다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대로 의가 생기고, 귀로 소리를 듣기 이전에 의가 없다가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대로 의가 생깁니다.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껴서 의가 생기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색성향미촉이 의로 되어 생겨나는 것 이외에 의의 근원은 본래 없습

14) 駒澤大学 도서관 소장. 188.8-198.「위 논문」, 155.

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없는 것입니다.

다그쳤다[拶]. 언제 있고, 언제 없는가.

설명하였다[弁]. 지금[當座] 있고,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의意가 생겨나고, 보고 들은 다음에 의라고 말하며, 따로 취할 것이 없으므로 지금 있고, 지금 없는 것입니다.

또 설명하였다[弁]. 지금 있고, 지금 없는 것입니다.

스승이 손의 부채로 자리를 치며 말하였다. 들었는가. 또 자리를 털면서 말하였다. 먼지를 보라. 그 의意를 취하여서 보라. 있는가? 수좌首座에게 있고, 지금[當座]에 없는 것이. (후략)[15]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스승이 질문과 새로운 견해를 요구하는 '다그쳤다[拶]'로 시작하는 문장과 학인의 설명[弁]이다. 때로는 '스승이 말씀하시었다[師話曰]'로 시작하는 보충적인 문장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스승이 말씀하시었다[師話曰]. 가마쿠라 사이묘지最明寺 스님께서 이백수자栢樹子 화두를 깨달았을 때의 노래에 '벚나무를 깨뜨려 보면 색도 없고, 꽃씨를 봄에 가져갈 수 없네'라고 하였다. 이것이 변弁의 마음이다. 만목천초萬木千草와 비정초목非情草木은 모두 같다. 사람과 조수鳥獸, 비정물도 모두 의意라는 것에서 차이가 없고, 같다.[16]

이것만을 보면 중국의 이른바 문자선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공안을 따라 일종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는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의 '의(意)'에 대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백수자(栢樹子)'의 '수(樹)'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생략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가 아니라 선사상의 몇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면 비교적 설명하기 쉬운 논

15) 「위 논문」, 164-165.
16) 「위 논문」, 166.

지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 주된 취지가 다른 「밀참록」에도 보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사이쿄지밀참록(西教寺密參錄)』의 같은 공안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승려가 월주越州에게 무엇이 조사가 서래西來한 뜻[意]인지 물었다.>
설명하였다[弁]. 있는 것에 비슷한 없는 것입니다.
다그쳤다[拶]. 없는 근거를 설명하여 보라.
설명하였다. 머리 위에서부터 다리 밑까지 전체가 껍질은 껍질, 살은 살, 뼈는 뼈로 나누어 보아도, 의意라고 하는 것은 색도 모습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귀에도 들리지 않고, 코에도 냄새 맡을 수 없고, 혀에도 맛을 볼 수 없고, 몸으로도 느낄 수 없고, 말로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다그쳤다[拶]. 무심無心이라면 서운하고, 갖고 싶고, 사랑스럽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여 보라.
설명하였다. 의意는 있음에 비슷한 것입니다. 고인이 말하기를 있지만 있지 않고, 없지만 없지 않고,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여기에 있지만 비슷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말하기를 심법心法은 모양이 없어서 시방에 두루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체는 없어도 중국과 천축에 있으면서 분별하여 시방에 두루 통하여 있는 듯하면서 없습니다.
또한 고인이 말하기를 심법은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물이 있고, 사람의 5체와 6근이 있음에 비로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있는 듯하면서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현재·미래의) 3세를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세의 무심을 깨달으면 윤회도 없습니다. 색상이 있는 곳에서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명안明眼의 위에서는 윤회는 없습니

다. 3세의 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략)[17]

여기에서도 '조사서래의'의 '의(意)'가 초점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석의 방식과 방향석이 매우 비슷하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것이다. 간화선이면서, 즉 공안에 대하여 스승이 학인의 견해를 확인하는 장임에도, 여기에 보이는 것은 공안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다. 물론 제시한 사례들만으로 무로마치선의 전모가 드러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밀참록」 들을 보아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무로마치선의 간화선이 일본선의 사상사적 흐름 속에 미친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17) 安藤嘉則(2011), 255.

Ⅵ. 결론에 대신하여, 공안관의 근본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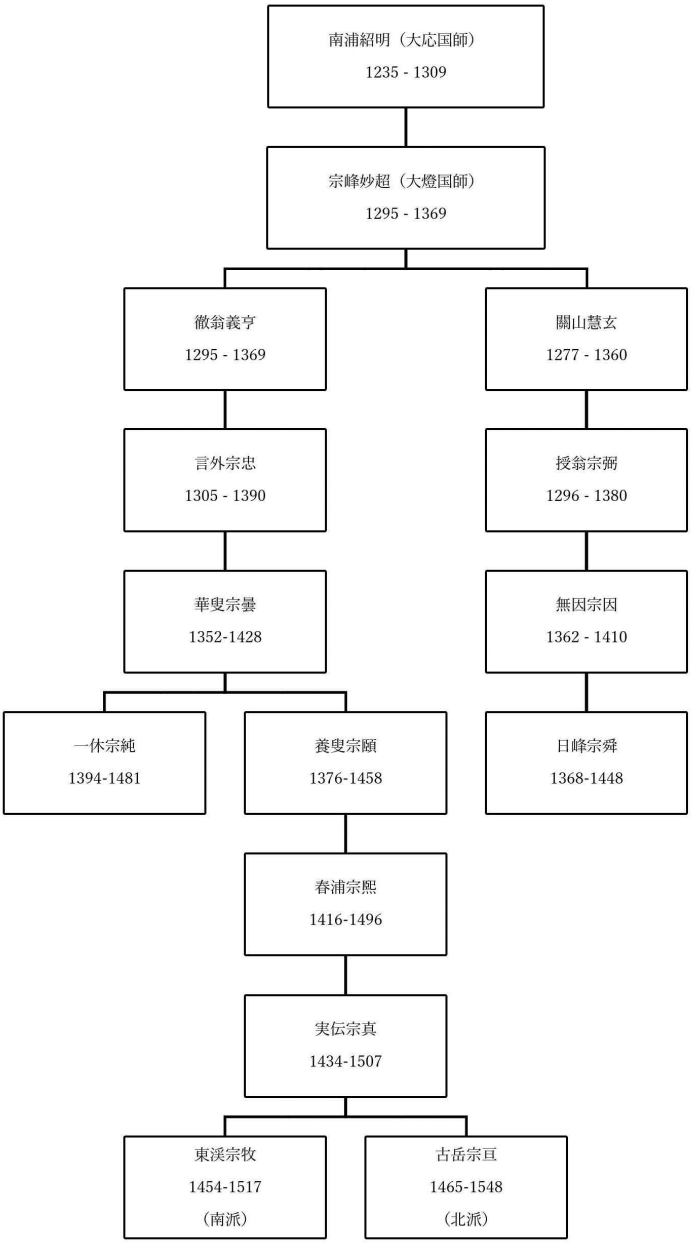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로마치선은 복수의 공안을 순서대로 참구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공안에 대하여는 세세한 코멘트인 하어(下語)가 붙어 있다. 중국의 선사상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러한 방식은 간화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자선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과의 커다란 차이점은 그 코멘트는 강의나 공개되는 텍스트에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스승과 학인만이 있는 입실入室의 공간에서 행해진 것에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논자의 이해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아직 가설이라는 점을 미리 이야기해둔다.

대혜종고에 의해 완성된 간화선에서는 공안은 대오를 일으키는 방아쇠와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5산선에 전래되었는데, 무소의 철만두와 같은 비유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안은 무미한 것으로, 그 근본에 있는 뜻은 부처의 뜻 그 자체이다. 그것을 꿰뚫으면 깨달음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무로마치선에서는 공안에 일종의 '의(意)'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단순한 문헌해석이나 교학적 설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적(禪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한 점은 『벽암록』을 비롯한 송대 이후의 공안집에 보이는 착어(著語)의 기능에 가까운 감이 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다이토에게서 이미 확인되는 하어 등과 같은 코멘트의 이의(異議)는 중국의 선이나 5산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나하나의 공안이 가지고 있는 의(意)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하나의 공안을 돌파하는 것은 대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안이 드러내고 있는 의(意)

를 「이해」 하는 것이 된다. 불의(佛意)는 하나의 공안을 돌파하는 것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진실을 직접 회득(會得)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가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설명되는 의문들이 적지 않다. 특히 하쿠인선(白隱禪) - 즉 현대 일본의 임제종 – 의 가장 큰 특징인 공안체계의 유래, 또는 그 사상적 의미를 생각할 때에 무로마치선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논자는 확신하고 있다.


南浦紹明（大応国師）
1235 - 1309
宗峰妙超（大燈国師）
1295 - 1369
徹翁義亨
1295 - 1369
關山慧玄
1277 - 1360
言外宗忠
1305 - 1390
授翁宗弼
1296 - 1380
華叟宗曇
1352-1428
無因宗因
1362 - 1410
一休宗純
1394-1481
養叟宗頤
1376-1458
日峰宗舜
1368-1448
春浦宗熙
1416-1496
実伝宗真
1434-1507
東渓宗牧
1454-1517
（南派）
古岳宗亘
1465-1548
（北派）

<그림> 다이토파 법계약도

<참고문헌>

1. 원전류

柳幹康(2018), 「夢窓疎石 『宗鏡錄』」, 『東アジア仏教学術論集』 6.
森大狂·山田孝道 校注(1921), 『禅門法語集(下)』, 法融館, 1921.

2. 단행본

平野宗浄 編(1978), 『日本の禅語録』 六, 講談社.
安藤嘉則(2011), 『中世禅宗における公案禅の研究』, 国書刊行会.
玉村竹二(1981), 『日本禅宗史論』 卷2, 思文閣出版.
平野宗浄 編(2003), 『自戒宗·一休年譜』, 春秋社.
鈴木大拙(1999), 「禅思想史研究」, 『鈴木大拙全集』 Ⅰ, 岩波書店.

3. 논문

平野宗浄(1971), 「大燈国師下語の研究(資料編)」, 『禅文化研究所紀要』, 3号.
平野宗浄(1972), 「大燈国師下語の研究(続編)」, 『禅文化研究所紀要』, 4号.
飯塚大展(2001), 「大徳寺派密參錄について(6)」, 『駒澤大学仏教学部研究紀要』 59号.

Abstract

The Muromachi Kanna Zen (看話禅):

Emergence of a Systematization?

Didier Davin

One of the most obvious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Japanese Zen Rinzai School is the fact that the practitioner aims the awakening by passing not only one, but several gong.an (j. kōan). This specificity is the mark of the so-called “Hakuin-Zen”, which is the only type of Zen remaining in Rinzai branch in Japan today.

This article is a reflection on the possible origins of this phenomenon and examines especially the hypothesis that it goes back to the doctrinal background of the Daitō branch who emerged at the end of the Middle Âge. As it was showed in many research – and notably reconfirmed by the study of the recently discovered texts of the Shinpuku-ji temple - during the Kamakura period (1185~1333) all the different types of Zen developed in Japan had in common the integration of the so called scriptural teachings.

Daitō, and after him his branch, broke with this attitude and advocate the exclusive use of the Zen approach. Consequently, the practice focused exclusively on kōan - and a new way of handing them – emerged. About many other characteristics, the necessity to pass several kōan and a kind of systematization can be noticed. This is most probably in this environment that the beginning of a movement culminating with the creation of the Hakuin-Zen should be sought.

Keywords ● Rinzai School, Kanna zen, Muromachi Zen, Daitō Kokushi, Kōan.